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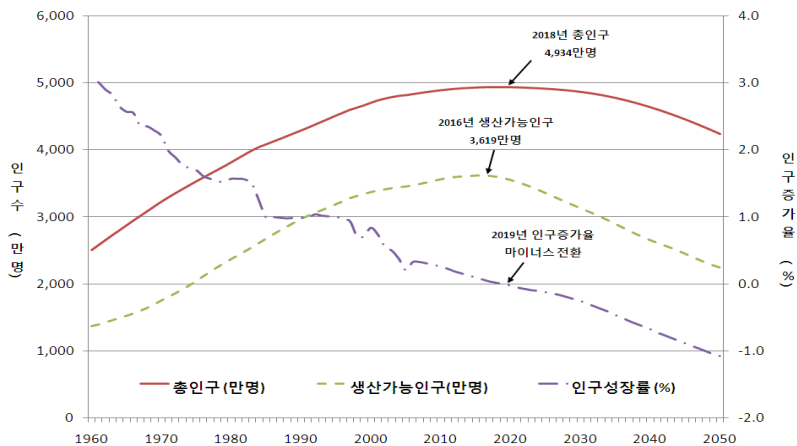
Ⅱ. 저출산·고령화의 추세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은퇴 시기가 도래한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과 노동시장의 특징(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할 거시경제위험과 가계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저출산·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그림 Ⅱ-1〉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2006).

우리나라 총인구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4,23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²⁾.

또한 15세와 64세 사이의 인구로 정의되는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보다 2년 빠른 2016년 3,619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 명이 될 것이다.

연령별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15~64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2010년 72.9%에서 2050년 53%까지 낮아질 것이다. 1970년 총인구에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가 42.5%, 노인인구가 3.1%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동 비중은 각각 16.2%, 11.0%로 변동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50년에는 유소년인구가 8.9%, 노인인구가 38.2%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표 Ⅱ-1〉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 명, %)

연령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9,241	7,907	6,118	5,525	3,76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4,530	35,611	35,506	31,299	22,424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7,701	11,811	16,156
0~14세	42.5	34.0	25.6	21.1	19.2	16.2	12.4	11.4	8.9
15~64세	54.4	62.2	69.3	71.7	71.7	72.9	72.0	64.4	53.0
65세 이상	3.1	3.8	5.1	7.2	9.1	11.0	15.6	24.3	38.2

자료: 통계청(2006).

2) 1970년 2.21%를 기록하였던 인구 증가율도 2010년에는 0.26%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나.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특징

1) 고령화 속도

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표 II-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 → 14%	14% → 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영국	n.a.	1975년	2028년	n.a.	53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한국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통계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전세계	2002년	2039년	n.a.	37년	n.a.

주: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일 경우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자료: UN(2005); 통계청(2006).

우리나라는 1999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초고령사회로 이행중인 유럽의 주요 국가와 일본 등에 비해 아직까지 인구구조의 고령화 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8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기간은 프랑스 154년, 미국 89년, 이탈리아 80년, 캐나다 79년, 독일 76년, 일본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7년에 불과하다³⁾. 따라서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⁴⁾와 노년부양비⁵⁾의 합)가 높아질 것이다. 총부양비는 2010년 37.2%를 기록하였고 2030년 55.4%, 2050년 88.8%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3〉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단위: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부양비	83.8	60.7	44.3	39.5	39.4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8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2.6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67.7	125.9	213.8	429.3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	-	13.5	9.9	-	6.6	4.6	2.7	-

자료: 통계청(2006).

3) 한편, UN의 인구전망에 의하면 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1950년에 8%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 14.4%로 높아졌으며, 2025년경에 20%를 넘어설 것이다. 이에 반해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느린 편으로 1950년에 4% 수준에서 2000년에 5%, 2030년 10% 수준에 도달하며, 2050년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 0~14세의 인구/15~64세의 인구

5) 65세 이상 인구/15~64세의 인구

유소년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나 노년부양비가 2010년 15.0%에서 2030년 37.7%, 2050년 72.0%로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령화지수⁶⁾는 2010년 67.7%로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68명 정도이나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 100명당 214명, 2050년에는 42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총부양비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2050년 89%에 달하게 되는데 동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 97%, 이탈리아 95%에 육박하며 선진국 평균인 71%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표 II-4〉 우리나라 및 주요국 총부양비

(단위: %)

국가	총부양비		
	2005년	2030년	2050년
전 세계	55	53	57
선진국	48	61	71
개도국	57	52	55
한국	39	55	89
일본	51	74	97
미국	49	60	61
이탈리아	51	69	95
프랑스	53	68	75
중국	41	50	65

자료: UN(2005).

6)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2. 저출산 · 고령화의 원인

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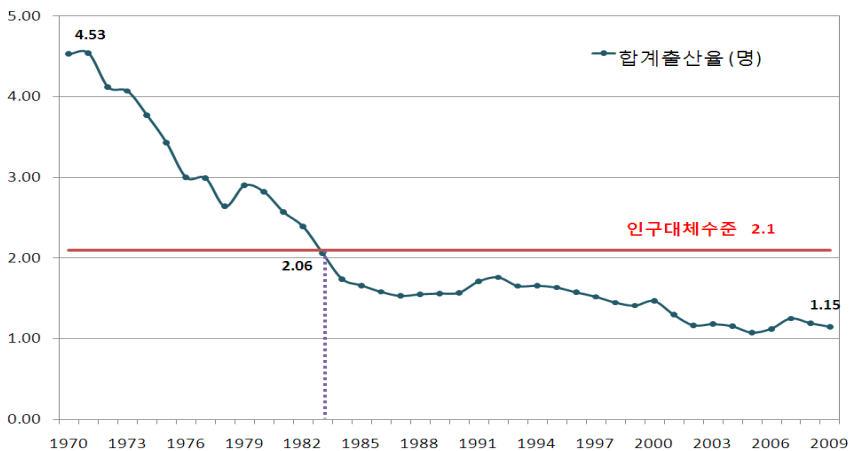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6.0명에서 1970년 4.53명, 1983년 2.08명으로 하락한 이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전통적인 가족 · 자녀관의 변화, 초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산의 기회비용을 직 · 간접적으로 증가시켜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신장으로 직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이 줄어들어 따라 남아선호사상도 사라지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직장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신자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자녀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2〉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

셋째,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주택마련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져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이상호·이상현, 2010). 실제로 2000년 25~29세 여성 1,000명당 평균 121.8명을 출산하였는데, 동 출산아 수는 2010년 81.1명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64.6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30~34세 여성의 경우 1,000명당 출산아 수가 2000년 80.4명에서 2010년 97.8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1.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증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교육 비중은 2.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노후대비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표 II-5〉 출산 관련 통계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합계출산율(명)	1.57	1.63	1.45	1.08	1.16	1.18	1.22	1.26
연령별 출산율 ²⁾	20~24	-	-	28.3	16.4	15.7	15.1	14.7
	25~29	-	-	121.8	90.4	81.1	71.0	64.6
	30~34	-	-	80.4	92.3	97.8	99.5	100.6
	35~39	-	-	17.5	22.3	30.6	40.3	49.6
20~39세 여성인구비중(%)	36.1	37.1	34.9	32.7	29.6	27.1	25.4	22.9
총출생아 수 ¹⁾ (천 명)	649	715	634	435	420	388	375	367

주: 1) 1990~2005년, 2009년 출생통계 결과; 2010~2025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2)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임.

자료: 통계청; 이상호·이상현(2010)을 재인용함.

나. 기대수명 연장

의학의 발전과 소득 수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10년 현재 79.6세(남성 76.1세, 여성 82.9세)로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서 2030년 83.1세, 2050년 86세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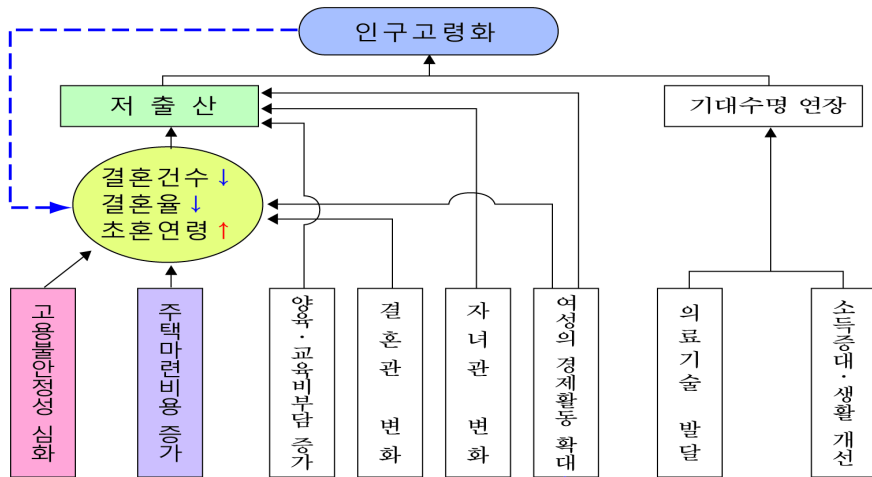
〈표 II-6〉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단위: 세)

기대수명	1971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평균	62.3	65.7	71.3	76.0	78.6	79.6	81.5	83.1	86.0
남자	59.0	61.8	67.3	72.3	75.1	76.1	78.0	79.8	82.9
여자	66.1	70.0	75.5	79.6	81.9	82.9	84.7	86.3	88.9

자료: 통계청.

〈그림 II-3〉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자료: 이상호·이상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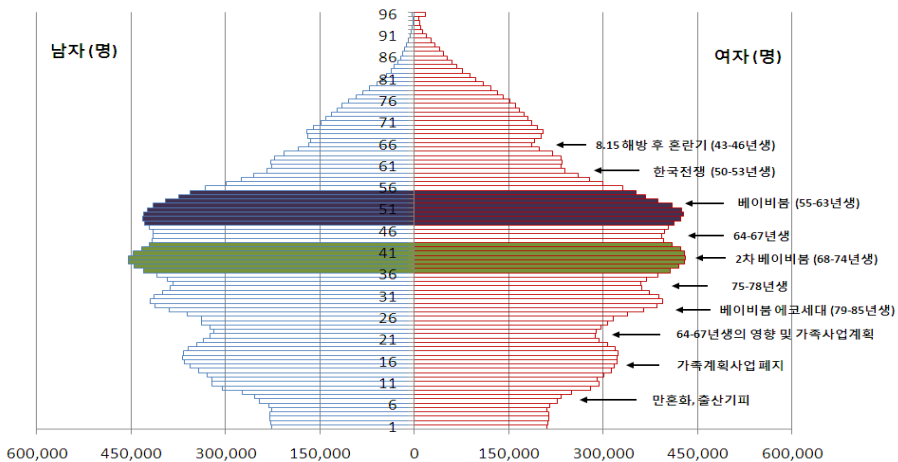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한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3. 베이비 붐 세대 충격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36~55세)는 1,315만 명으로 추산된다. 베이비 붐 세대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과 1963년 사이 출생)와 2차 베이비 붐 세대(1968년과 1974년 사이 출생)로 구분된다.

은퇴 시기(55세)가 도래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 712만 명이 며 인구 비중은 14.6%이다.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 603만 명이 며 인구 비중은 12.4%이다. 이들이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에 고령화지수나 노인부양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들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4〉 2010년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베이비 붐 세대가 형성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의 출생자를 베이비 붐 세대라 칭하며 인구의 26.0%인 7,800만 명 정도이다. 일본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의 출생자가 베이비 붐 세대인데 678만 명으로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표 II-7〉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붐 세대	한국	미국	일본
출생시기	1955~1963년(1차) 1968~1974년(2차)	1946~1964년	1947~1949년
연령(2010년)	47~55세, 36~42세	46~64세	61~63세
인구규모	1,315만 명 (전체 인구 중 26.9%) 2010년 인구추계	7,798만 명 (전체 인구 중 26.0%) 2006년 인구추계	678만 명 (전체 인구 중 5.3%) 2005년 인구추계

자료: 박시내·심규호(2010)를 재구성함.

일본의 경우 인구의 5.5%인 베이비 붐 세대가 3년에 걸쳐 은퇴함에 따라 숙련 노동자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 베이비 붐 세대의 교육 수준

(단위: %)

학력	이전 세대		베이비 붐 세대 (42~50세)	이후 세대	
	60세 이상	51~59세		30~41세	19~22세
초졸 이하	63.5	26.3	8.7	1.2	0.4
중학교	13.5	23.7	16.7	3.7	1.1
고등학교	14.3	33.5	46.1	46.7	27.0
대학교	7.6	14.0	24.6	43.3	68.8
대학원	1.0	2.6	3.9	5.1	2.7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조사; 박시내·심규호(2010)에서 재인용함.

박시내·심규호(2010)가 베이비 붐 세대의 특징을 잘 정리하였는데 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으나 베이비 붐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낮다. 200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의 경우 63.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22.9%에 불과하다. 51~59세 연령층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중이 50.1%, 베이비 붐 세대인 42~50세 연령층의 경우 74.6%에 달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도 28.5%에 이른다.

이러한 고학력 추세는 이후 세대에 더욱 심화되는데 2005년 기준으로 30~41세 연령층과 19~29세 연령층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각각 95.1%, 98.5%에 달하며,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도 각각 48.4%, 71.5%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적자본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셋째, 베이비 붐 세대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베이비 붐 세대와 이후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농업,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이후 세대는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문화 등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 부문의 경우도 1차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비중이 더 높다. 이것은 1차 베이비 붐 세대보다는 이후 세대가 생산성이 높거나 향후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가 요구되는 일부 서비스산업의 취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더라도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실업 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9〉 베이비 붐 세대의 산업별 취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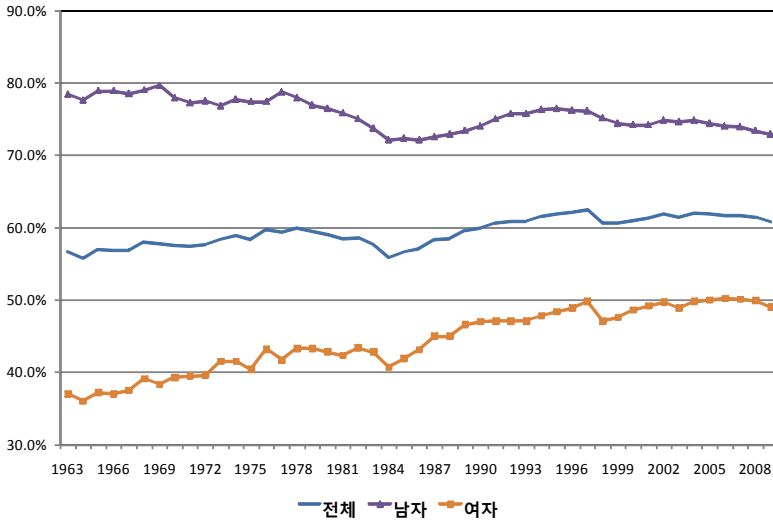
직업	전체	51세 이상	1차 (42~50세)	2차 (30~36세)	에코세대 (20~26세)
농림, 임업	10.36	33.09	6.79	1.93	1.01
어업	0.53	1.15	0.64	0.19	0.12
광업	0.11	0.15	0.14	0.07	0.04
제조업	19.73	11.18	20.88	22.18	23.47
전기가스, 수도	0.45	0.30	0.51	0.57	0.31
건설업	7.48	6.19	9.61	7.81	3.88
도매 및 소매업	15.03	11.80	15.27	16.28	16.80
숙박 및 음식업	7.74	7.10	10.47	5.78	6.88
운수업	4.63	5.60	5.80	3.85	2.41
통신업	1.17	0.46	1.15	1.65	1.43
금융 및 보험업	3.28	1.25	3.04	4.79	3.54
부동산 및 임대업	2.39	4.36	2.31	1.72	0.86
사업서비스업	5.82	3.71	4.08	8.35	8.17
공공행정업	3.85	2.74	4.17	4.75	3.13
교육서비스업	6.77	3.69	5.93	8.25	9.86
보건 및 사회복지	3.60	1.46	2.19	4.20	9.33
오락, 문화	2.04	1.09	1.62	2.51	3.79
공공, 개인서비스	4.39	3.94	4.68	4.66	4.32
가사서비스	0.27	0.50	0.41	0.08	0.02
국제, 외국기관	0.05	0.06	0.05	0.05	0.02
분류 불가능	0.31	0.18	0.27	0.34	0.62

자료: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조사; 박시내·심규호(2010)를 재편집함.

4.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과 저출산·고령화

가.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II-5〉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2010b).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⁷⁾은 1980년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6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보다 월등히 높으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6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남성은 77%, 여성은 53%를 보이고 있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65세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성은 40%, 여성은 23%로 나타난다.

7) 경제활동 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총인구

〈표 II-10〉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64세	전체	64.4	64.8	65.6	65.4	66.1	66.3	66.2	66.0	65.4
	남성	77.1	77.1	77.9	78.0	78.3	78.2	77.7	77.6	76.9
	여성	52.0	52.8	53.5	52.9	54.1	54.5	54.8	54.8	54.7
65세 이상	전체	29.6	30.0	30.7	28.8	29.8	30.0	30.5	31.3	30.6
	남성	40.6	41.2	42.7	39.8	41.4	41.2	41.9	42.9	41.9
	여성	22.8	22.9	23.0	21.5	22.2	22.5	22.7	23.3	22.9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매우 낮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이며 영국, 캐나다와 독일은 70%를 상회하지만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다. 둘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12.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1%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인구의 빈곤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표 II-11〉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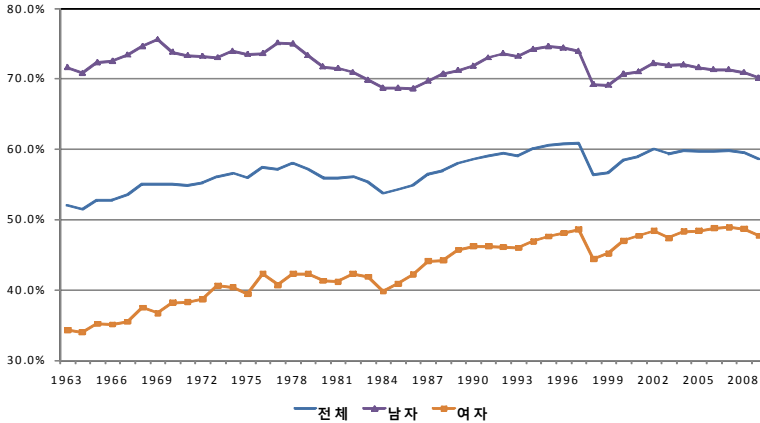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OECD
15~64세	전체	73.9	74.6	76.6	78.1	76.4	70.6	62.4	70.6
	남성	84.8	80.4	83.2	81.8	82.2	75.1	73.7	79.9
	여성	62.9	69.0	70.2	74.4	70.4	66.2	51.1	61.5
65세 이상	전체	20.1	17.2	7.8	10.5	4.1	1.5	3.2	12.3
	남성	29.4	21.9	10.5	15.1	5.9	2.2	5.8	17.6
	여성	13.1	13.6	5.6	6.6	2.7	1.0	1.3	8.4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나. 연령별 · 성별 고용률

〈그림 II-6〉 우리나라 고용률 추이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0b).

우리나라 취업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990년 이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동참가율과 유사하게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1985년 이후 여성의 고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표 II-12〉 우리나라 연령별 ·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 ~ 64세	전체	61.5	62.1	63.3	63.0	63.6	63.7	63.8	63.9	63.8	62.9
	남성	73.1	73.5	74.9	75.0	75.2	75.0	74.6	74.7	74.4	73.6
	여성	50.0	50.9	52.0	51.1	52.2	52.5	53.1	53.2	53.2	52.2
65세 이상	전체	29.5	29.9	30.5	28.6	29.6	29.8	30.3	31.1	30.3	29.7
	남성	40.3	41.0	42.4	39.6	40.9	40.8	41.5	42.5	41.4	40.9
	여성	22.7	22.9	22.9	21.5	22.2	22.4	22.7	23.3	22.8	22.1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우리나라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남성은 7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을 보이고 있고, 남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은 40%, 여성은 2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보다 비교적 격차가 작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실업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약 6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52.2%에 머물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남성과 여성 모두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산업별 취업 분표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노인인구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주요국 고용률

(단위: %)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OECD	
15~64세	전체	70.0	67.6	70.6	71.5	70.4	64.1	57.5	62.9	64.8
	남성	80.2	72.0	75.7	74.0	75.5	68.4	68.6	73.6	73.0
	여성	59.8	63.4	65.6	69.1	65.2	60.0	46.4	52.2	56.7
65세 이상	전체	19.5	16.1	7.6	10.1	4.0	1.4	3.1	29.7	11.9
	남성	28.4	20.5	10.1	14.5	5.8	2.0	5.7	40.9	16.9
	여성	12.9	12.8	5.5	6.4	2.7	0.9	1.2	22.1	8.1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0b).

5. 소결

고용불안, 사교육비 증가, 주택마련비용 증가 등에 따라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수도가 줄어드는 등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의학기술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은 유소년인구를 감소시키는 한편 노인인구를 증가시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는 속도와 규모면에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불안, 주택마련비용 및 사교육비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감안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출산율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